

(5) 시오가마진자(신사) (제 6 권 919 번)

【시비 내용】

야마베노 아카히토

와카노우라니 시오미치쿠레바 카타오나미 아시헤오사시테 타즈나키와타루

【해설】

이 시는 만요슈(만엽집) 제 6 권에 실린 시(919 번 시)입니다. 와카노우라는 쓸물과 밀물의 차가 큰 만입니다. 그 만으로 지금 막 밀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.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학의 무리는 밀물에 쫓기듯 날아가 갈대가 자란 해안가를 향해 날아갑니다.

밀려오는 밀물과 힘차게 날아가는 학의 무리와 와카노우라의 웅대한 자연을 활기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

이 시는 헤인안시대 “코콘와카슈(고금 화가집)”의 “가나서”에 실렸다는 것으로 한번에 와카노우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애창되고 있습니다.

시비의 문자는 **오노에 하치로**(사이슈) 씨 (가인, 서예가)의 필적입니다. 우아한 천연석에 유창한 필적이 새겨져있고 와카야마현 내에 손꼽히는 만요(만엽) 시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